



지식경제부 장관 최 중 경

“광(光)산업,
핵심 성장동력 육성”



앞으로 광산업 육성 일환으로 차세대 광 네트워크 시대에 대비해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조명·융합시대를 대비한 LED산업 제 2도약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이 LED, 광학렌즈 등 광(光)산업을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지경부는 주력분야 경쟁력 강화와 광학렌즈 등 차세대 유망분야 집중지원, 인프라 정비 등 광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25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최중경 장관과 강운태 광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연구개발특구 출범식을 갖고 광산업 육성전략을 소개했다. 지경부는 올해 광주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포함해 호남권에 2,700억원 을 지원해 호남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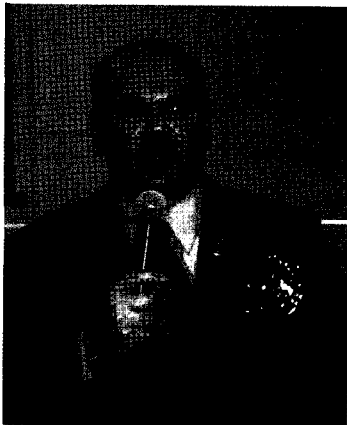
최 장관은 “광주연구개발특구는 광주시 광산구와 동구, 북구 및 전남 장성군 등 18.7km²에 조성된다”면서 “광융복합 산업은 물론 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와 스마트케어 가전, 차세대 전지 등 4대 특화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광산업 융복합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최 장관은 “앞으로 광산업 육성 일환으로 차세대 광 네트워크 시대에 대비해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조명·융합시대를 대비한 LED산업 제 2도약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며 “유망 신규시장인 자동차 나이트비전·야간 CCTV용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차·가전·의료 분야 IT융합의 핵심요소인 광센서산업에 대한 발전전략도 상반기까지 수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력산업과 신규 융합시장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레이저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도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빛을 통한 기술 혁명은 유비쿼터스시티(U-City) 등 앞으로 열릴 첨단환경 구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광 산업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기업과 함께 광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v1 Renewables 부사장
Merritt Brown

“녹색성장을 선도할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남해안 지역은 풍력 등 친환경재생에너지의 전략적 요충지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2030년 풍력에너지 급성장 할 것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해상풍력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 신재생 에너지 기업 Rev1 리뉴에비블사의 메릿브라운 부사장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야말로 향후 녹색성장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2009년부터 투자가 활발히 진행됐으며 오는 2030년에는 그린에너지의 폭발적인 성장과 수요가 함께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풍력에너지 전문가인 메릿브라운 부사장은 “전세계 그린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선두에 서있으며 미국과 인도 등이 뒤를 잇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풍력에너지 터빈 설비가 크게 늘고 있으며 기술과 규모면에서도 5MW급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면서 “Rev1은 이미 목포대와 인력양성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오바마 정부는 경제회복특별법 제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혜택을 지원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대중의 관심이 부족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수요예측이 힘들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정부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기름값이 치솟아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신재생 분야는 단발성이 아닌 향후 100년에 걸친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기술사업화센터장
배 정 찬

“기술이 있다고 다 사업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을 발굴해 세계에서 통하는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광융복합산업 육성에 최선

최근 취임한 연구개발특구본부 배정찬 광주기술사업화센터장은 “광주는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해 광산업 관련 연구기관이 집중돼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차세대 광융복합산업에 포인트를 맞춰 지원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광주출신인 배 센터장은 20여년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상용화를 담당한 기술이전분야의 베테랑이다.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생산기술연구원 광주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한 배 센터장은 광주경제와 산업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광주만의 독특한 산업구조와 인프라를 살린 차세대 먹거리로 융복합산업을 주저 없이 꼽았다. 배 센터장은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육성,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친환경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정보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사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는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제 2차 특구육성종합계획 추진의 첫해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때문에 공급자중심의 기술보다는 기업 수요와 시장이 견인

하는 기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 센터장은 “광주기술사업화센터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기능과 조직역량을 강화해 첨단융합 산업 스타기업을 발굴하겠다”며 “창업에서 성공까지의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보완해 R&D 성과 파급효과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센터장은 이어 “연구개발 비즈니스의 선순환을 실현해 광주를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 가겠다. 필요하다면 미국과 유럽 등과도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대덕과 대구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산업을 접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이 말 그대로 연구개발에만 머물러선 안된다”며 “지역 기업들의 미래먹거리 창출과 차별화된 R&D 상용화를 위해 한중일 연구거점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배 센터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금속공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생산기술연구원내에서도 기술사업화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